

16세기 중엽 순창 향리사회의 城隍大神事跡 현판 제작의 배경과 과정

최종석*

〈차 례〉

1. 머리말
2. 향리층 주도 성향제의 폐지 위기와 城隍大神事跡 현판 제작
3. 성향신=설공검 등식 창출과 향리층 주도 성향제의 정당성 강화
4. 맺음말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명종 18년(1563) 무렵에 ‘城隍大神事跡’을 제목으로 하는 현판을 제작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한층 심화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작성된 글이다. 특히 16세기 중엽에 순창군의 鄉吏 사회가 현판을 처음 제작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향제가 위기에 빠진 상황 및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향리층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현판 제작의 과정을 파악하였다. 현판 제작의 배경과 과정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도학 실천에 열중하였을 인물인 양응정은 군수로 부임한 이후 구래의 향리 주도 성향제를 음사라 하여 금단하고 이를 삭망 시에 유교식으로 경건하게 치르는 성향제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순창군의 향리들은 향리 주도의 성향제가 중단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일환으로 ‘城隍大神事跡’ 현판을 제작하였다.

현판 작업의 핵심은 성향사 내에 보관되어 온, 고려 후기의 것으로 성향신에게 수여된 職牒들을 현판에 옮겨 새겨 후세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일을 통해 순창의 향리사회는 순창 성향신이 예전부터 국가로부터 여러 차례 직첩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하여 성향신의 정당성을 확보·강화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순창의 향리층은 군의 土姓인 설씨이기도 하고 『동국여지승람』 순창군 인물 항목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설공검을 성향신으로 삼으면서, 그리고 유교적 가치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인물인 설공검을 성향신으로

*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모시면서, 이들 첩문을 새기는 현판에다가 『동국여지승람』의 설공검 행적도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현판 제작의 경위를 밝히는 글에서는 성황신=설공검이라는 등식을 창출하면서 설공검이 고려 후기 이래로 성황신이었다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이와 맞물려 설공검이 성황신이 되고서 성황제는 국제로 치러졌고 성황신은 국가로부터 수차례 작첩을 받았다고 하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다. 순창군의 향리 사회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순창의 성황신인 설공검은 양응정과 같은 이가 보더라도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역사 인물이고 과거에 國祭의 대상이었으며 여러 차례 국가로부터 勅牒을 받았던 존재라 칭송하여 성황신의 정당성을 확보·강화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위기에 처한 구래의 성황제를 구해내고자 하는 순창 향리 사회의 이 같은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 중엽 이후로도 향리 주도의 성황제가 존속한 데서 그러하다. 특히 순창 지역 사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른 지역 사례와 달리 위기에 빠진 향리층 주도 성황제를 구해내고자 하는 향리 사회의 대응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 하겠는데, 이것이 순창 지역 사례의 연구사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순창(淳昌), 향리(鄕吏), 성황제(城隍祭), 성황신(城隍神), 음사(淫祀), 설공검(薛公儉)

1. 머리말

‘城隍大神事跡’을 제목으로 하는 현판은 가로로 길쭉한 목판 2장을 위아래로 이어 붙여 하나로 만든 것으로, 크기는 가로 180cm, 세로 54cm이고, 현판에는 총 73행 1,600여 자의 글자가 세로로 새겨져 있다. 현판 내용에 따르면, 이 현판은 영조 19년(1743)에 제작되었고, 영조 30년(1754)과 순조 23년(1823)에 일부 내용이 여백에 追記되었다.¹⁾

이 글에서는 명종 18년(1563)에 ‘城隍大神事跡’을 제목으로 하는 현판이²⁾ 처음 제작되었을 당시에 새겼을 내용에 초점을 맞춰, 이때 현판을 제작하게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9647)

2) 영조 19년(1743)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현판은 ‘城隍大神事跡’을 제목으로 하나, 명종 18년(1563)에 현판을 처음 제작하였을 당시에도 제목이 ‘城隍大神事跡’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현존하는 현판의 주요 내용은 명종 18년에 작성된 것이고 이 이후의 기록들은 사실상 성황당의 重修·改建 등의 경위를 소개한 것인 데서, 명종 18년에 현판을 제작하였을 당시에도 현판 제목은 ‘城隍大神事跡’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영대도 ‘城隍大神事跡’을 제1차 현판(명종 18년에 제작한 것) 당시의 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영대, 『韓國·中國의 城隍神仰史와 淳昌의 『城隍大神事跡』』,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381쪽.

된 배경과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영조 19년(1743)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현판에 새겨진 총 73행 가운데 34나 35행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다뤄보도록 하겠다.³⁾

지금까지 城隍大神事跡 현판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순창 성황제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그리고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꼼꼼히 이루어졌고, 이와 맞물려 관련 연구 성과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두드러진다.⁴⁾ 이러한 연구 여건 속에서 순창 성황제에 관한 이해 증진에 보탬이 될 만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다만 여기서 집중해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인, 명종 18년(1563) 무렵에 이 현판을 제작한 배경과 이유에 관한 이해는 기존 연구성과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분명치가 않다고 보고 있다. 명료하게 파악됐다고 말할 수준은 못 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16세기 중엽에 순창군의 鄕吏 사회가 현판을 처음 제작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가 위기에 빠진 상황 및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향리층의 노력을 그간 충분히 유의해서 파악하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와 맞물려 현판 제작의 구체적인 계기와 과정 및 현판 내용의 구성 방식, 그리고 향리층 주도 성황제의 정당화 논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진 못했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16세기 중엽 향리층 주도 성황제와 관련하여 향리 사회

3) 정승모는 현판의 주요 내용이 명종 18년(1563)에 작성된 것이고 이 이후의 기록들은 이것에 추가한 것이라고 하여, 이 현판의 내용을 명종 18년 당시의 상황에서 재해석하거나 검토하거나 하는 시도를 한 바가 있는데(정승모, 『조선중기 전라도 순창군 성황제의 성격』,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공감하고 있다.

4) 城隍大神事跡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순창 성황사를 검토한 다수의 논문은 다음 저서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한국종교사연구회 편,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이외에도 다음 연구들이 참고된다. 이기태, 『성황사의 지역사회 이념의 통합-조선중·후기 순창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8, 1999; 송화섭, 『순창의 성황신과 성황신앙』, 『순창의 역사와 문화』, 문예연구사, 2002; 심승구, 『순창 성황제의 현대적 의미와 재현 방향』, 『백산학보』 118, 2020.

5) 이와 관련하여 정승모의 선행 연구(『조선중기 전라도 순창군 성황제의 성격』,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가 주목된다. 그는 사립인 양응정이 순창군수로 부임하여 기존의 성황제를 음사로 몰아 폐지하려 들자, 순창의 향리 집단은 성리학적 질서에 부합하고 지역의 대표 출신인 설공검을 성황신화하여 성황사를 존속시켰다고 하였다. 필자는 16세기 중엽 무렵 순창의 향리 사회가 종래의 성황제가 폐지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공검을 순창의 성황신으로 모셨다는 정승모의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판 제작의 구체적인 계기와 과정 및 현판 내용의 구성 방식, 그리고 현판 제작의 효과 및 향리층 주도 성황제의 정당화 논리 등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견이 적지 않다.

가 느꼈을 위기감의 실체 및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리 사회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순창군의 향리 사회가 16세기 중엽에 ‘城隍大神事跡’을 제목으로 하는 현판을 제작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한층 심화하여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작업이 기존 연구의 미비한 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2. 향리층 주도 성황제의 폐지 위기와 城隍大神事跡 현판 제작

우선은 명종 18년(1563) 현판을 처음 제작하였을 당시 현판에 새겼을 城隍大神事跡 글이 왜 그러한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실마리 삼아, 이때 현판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명종 18년에 현판을 처음 제작하였을 당시 현판에 새겼을 城隍大神事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즉 이 기문은 ①『東國輿地勝覽』 순창군 인물 항목에 수록된 설공검 행적,⁶⁾ ②성황신을 대상으로 封爵을 더하는(加封爵) 첩문, ③성황신 부부를 대상으로⁷⁾ 尊號를 더 높이는(加上尊號) 첩문, ④현판 제작 경위, ⑤山城大母에 관한 事跡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이 기문은 4개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작성된 글을 모아 실은 것이다. 즉 ①인 설공검 행적에 관한 글은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을 조선 성종 대(15세기)의 것이고, ②와 ③인 두 건의 첩문은 각각 충렬왕 7년(1281)과 충렬왕 23년(1297)에 작성된 것이며, 나머지 두 부분인 ④와 ⑤는 명종 18년에 현판을 처음 제작하였을 무렵에 작성된 것이다.

상이한 시점의 여러 글을 모아 놓은 데서 추측해볼 수 있듯이, 이 기문은

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9, 전라도 순창군 인물 고려 薛公儉. 성종대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현존하지 않고,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한 『신증동국여지승람』만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薛公儉 기록은 증보한 게 아니기에 『동국여지승람』의 것과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7) 본고에서는 봉작 대상을 성황신 부부로 보는 견해를 따르려 한다. 한국종교사연구회 편,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에 수록된 남중현, 『淳昌 城隍堂 현판의 관독과 해석』; 정승모, 『조선중기 전라도 순창군 성황제의의 성격』; 김기덕, 『고려시대 성황신에 대한 봉작과 순창의 〈城隍大神事跡〉 현판의 분석』 참조.

구성면에서 유기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 시점의 글들을 열거해 놓아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구성이 엉성하고 어색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15세기에 작성된 설공검 행적에 관한 글이 가장 앞에 기록된 것도 그렇고,⁸⁾ 『동국여지승람』 인물 항목에 수록된 설공검 행적에 관한 글을 옮겨다 놓은 것도 그렇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비록 현판을 처음 제작하였을 시점에서는 설공검이 순창 성황신이었다고 할지라도 성황신이 되기도 전인 생전의 사적을 城隍大神事跡에 수록한 게 자연스럽다고 하긴 어렵고, 더욱이 설공검 행적은 『동국여지승람』 인물 항목에 수록된 것으로, 同書 인물 항목에 실린 여타 인물의 행적과 이질적이거나 특별하다거나 할 게 없이 유교적 관점에서 생전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어서,⁹⁾ 성황신과 관련지을만하거나 사후에 성황신이 될 만한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처럼 성황신의 사적(城隍大神事跡)과 무관하다 할 수 있는 설공검 행적에 관한 글이 城隍大神事跡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게 어색하기만 하다. 또한, 고려 충렬왕 대 성황신에게 봉작을 더하고 존호를 더 높이는 2건의 첩문 어디에서도 성황신이 설공검과 관련되었을 만한 흔적은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¹⁰⁾ 요컨대, 城隍大神事跡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호 연관이 없는 기록인 설공검 행적 및 성황신에게 봉작을 더하고 존호를 더 높이는 첩문들을 병렬해 놓은 것이다. 어색한 구성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¹¹⁾

명종 18년(1563) 무렵에 작성되었을 현판 제작 경위에 관한 글은 城隍大神事跡이 왜 위와 같은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이때 현판을 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준다. 서술의 편의상 두 사안을 뭉뚱그려

8) 설공검의 사망 시점은 충렬왕 28년(1302)이어서(『고려사절요』 권22, 충렬왕 28년 2월), 설령 설공검이 사망한 직후에 『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설공검 행적의 기초가 되는 행장 類의 글이 작성되었다고 해도, 해당 글은 이들 첩문보다 뒤늦게 작성될 수밖에 없다.

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首, 東國輿地勝覽序 “人物記已往之賢”.

10) 정승모가 ‘대부분 연구자는 첩문에 기록된 성황대왕이 당시 생존해 있던 설공검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정승모, 앞의 논문, 224쪽), 첩문에서 설공검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11) 후술하듯 성황신은 설공검이라는 전제 속에서 보면, 어색한 구성이라는 인상은 상당폭 완화되긴 한다. 이러한 식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다뤄보도록 하겠다.

현판 제작 경위에 따르면, 1563년에 제작된 현판 작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오월 초하룻날에 또 吏房 崑世彦, 醫生 吳仁豪와 축문을 맡은 貢生 林大春을 보내어 역시 재계하고 지성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방 응세언이 전에 職牒이 祠宇에 있다는 말을 듣고 꺼내 오게 하여 열어보니 과연 많았다. 종이 먹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많아 단지 몇 장만 볼 수 있었다. 이에 현판에 기록하여 새기어 후세에 보여주는 것이니, 무릇 대소 인원들은 공경하고 또 공경할지이다.¹²⁾

위 인용문에 따르면, 현판 작업의 핵심은 祠宇(성황사) 내에 보관된, 성황신에게 수여된 職牒들 가운데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현판에 옮겨 새겨 후세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충렬왕 7년(1281)과 충렬왕 23년(1297)에 작성된 두 건의 첩문을 현판에 베껴 새기는 것이었다. 이들 첩문은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보관 상태가 양호한 문서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한편, 현판 작업의 핵심을 감안하면, 명종 18년에 현판을 처음 제작하였을 시에 현판 내용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두 건의 첩문 혹은 두 건의 첩문에 더해 직첩을 옮겨 새기는 일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글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현판 내용의 기본 구성은 ②성황신을 대상으로 封爵을 더하는 첩문을 베껴 적은 것, ③성황신 부부를 대상으로 尊號를 더 높이는 첩문을 베껴 적은 것(④현판 제작 경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명종 18년 무렵에 이방 응세언을 비롯한 순창의 향리들은 현판을 제작하여 두 건의 첩문을 베껴 새기는 일을 하였을까? 그리고 현판 내용에 두 건의 첩문을 수록하는 것(여기에 더해서 직첩을 옮겨 새기는 일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앞에 『東國輿地勝覽』의 설공검행적을 수록한 까닭은 무엇일까?¹³⁾

12) 『城隍大神事跡』.

13) 하나 더 보태자면, 산성대모에 관한 事跡을 城隍大神事跡 현판에 수록한 이유도 의문으로 제기할

현판 제작 경위에 관한 글은 이들 의문의 상당 부분을 해소해준다. 제작 경위에 관한 글을 차근차근 검토하여 의문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현판 제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응세언을 필두로 한 향리층의 작품이었던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방관이 간여한 흔적은 전혀 없다. 전언을 토대로 성황사에 보관된 職牒들을 꺼내어 열어보도록 한 것도 응세언이요,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일부 職牒을 현판에 기록하도록 한 것도 이방 응세언이었다. 또한, 응세언은 戶長 趙仁亨 등과 함께 기문을 작성하였고, 글씨를 쓴 林栢도 향리였다.¹⁴⁾

이처럼 이방 응세언을 필두로 한 순창군 향리층은 명종 18년에 현판을 제작하였다. 그러면 이때 순창의 향리 사회는 어떤 이유로 성황사 내에 보관되어 온 職牒들을 옮겨 새긴 현판을 제작하려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향리층이 주도한 현판 제작은 16세기 중엽 무렵에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가 약화·소멸하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때 불어닥친 위기의 내용과 성격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 개국 이후로 향리층 주도 성황제가 처한 양상과 그 변화를 간략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조선 건국 후 성황제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으니, 신왕조가 명초의 제도를 수용하여 성황제의 혁신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¹⁵⁾ 각 지역의 성황제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갔는데, 순창 성황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선 국제로 거행되어 온 성황제는 폐지되었다.¹⁶⁾ 일부 지역의 성황신만

수 있다.

- 14) 『城隍大神事跡』에 따르면, 임백의 5대손인 임계육이 향리인 데서, 임백 또한 향리였을 것이다.
- 15) 최종석, 「여말선초 명(明)의 예제(禮制)와 지방 성황제(城隍祭) 재편」, 『역사와 현실』 72, 2009a. 명초에는 혁신적 종교 심성의 등장을 배경으로 해서 각종 혁신적 예제를 마련하였는데, 조선초기에 수용한 성황제 관련한 예제도 그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小島毅, 『洪武改制と明代の地方志』, 『中國近世における禮の言説』, 東京大學出版會, 1996; 濱島敦俊, 『総管信仰—近世江南農村社会と民間信仰』, 研文出版, 2001; 최종석, 「조선 초기 종교 심성의 전환과 神事 혁신」, 『민족문화연구』 88, 2020 참조.
- 16) 국제로 거행되어 온 성황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성황제 일체를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지역의 성황신을 대상으로 한 성황제는 국제를 포함하여 여러 갈래의 것이 있기에, 이 가운데 국제로 치르는 성황제를 없앤다는 의미이다.

을 사전에 등재하여 국제로 치르는 방식을 폐기하여 성황제는 더는 국제로 거행하지 않게 되었다.¹⁷⁾ 순창에서는 고려시대의 어느 때인가부터 국제로 치르는 성황제가 있었다.¹⁸⁾ 현관 내용 가운데 “성황신으로 의탁하니 영험이 많아 國祭에까지 이르렀고, 여러 차례 봉작을 더하여 御印을 찍은 첩문을 받은 것이 많았다”¹⁹⁾라는 고려후기의 상황을 전하는 구문 및 고려 충렬왕 대 성황신에게 봉작을 더하고 존호를 더 높이는 2건의 첩문은 이 사실을 웅변한다. 國祭로 치르는 순창 성황제는 조선에 들어서도 한동안 존속하였을 것이나, 폐지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현관 내용 가운데 “세월이 오래되어 國祭를 因革한 이후(年來太久 因革國祭以後)”²⁰⁾라는 구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이래의 국제로 치러지는 성황제는 중국에는 폐지되고 말았다. 폐지 시점은 태종 대였을 것이다.²¹⁾

다른 변화는 향리가 주도해 온 축제 형식의 성황제가 공적인 위상을 잃고 음식으로 전락하고 그 자리를 지방관 주도의, 명 예제(흥무예제)에 의거한 성황제로 대신한 조치였다.²²⁾

왕조 개창 직후인 태조 1년(1392) 8월 경신일에 예조전서 조박 등이 건의한 상서²³⁾ 중에는 “國祭所인 여러 神廟와 주군 성황은 某州·某郡 성황신이라고만 칭하고 위판을 설치하며 각기 그 고을 수령이 봄·가을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전물·제기·작헌의 예는 한결같이 朝廷禮制(명 예제)에 의

17) 달리 보면, 이는 지방 성황들을 일률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8) 고려시대에는 군현을 단위로 해서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가 公的인 위상을 지닌 채 거행되었다. 순창과 같이 국제로 성황제가 거행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와는 별도로 국제로 치러진 성황제가 거행되었다. 순창에서는 성황제가 향리 주도와 국가 주도로 해서 이원적으로 거행된 것이다.

19) 『城隍大神事跡』.

20) 『城隍大神事跡』.

21) 태종 9년(1409)에는 영험처인 성황·산천·여러 神祠 등을 대거 사전에서 제거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7월 기사; 『세종실록』 권46, 세종 11년 11월 계속). 이것은 사전에 등재되어 온 영험처를 사전에서 배제한 첫 시도로, 영험이 있는 神을 위주로 한 고려 이래의 사전 운영 관행과 결별하는 의미심장한 움직임이었다. 이때 큰 폭의 정리가 이루어졌지만 마무리되지 못한 세종대까지 이러한 유형의 일은 드문드문 이루어졌다(최종석, 앞의 논문, 2009a 참조). 순창 성황제는 태종 9년에 사전에서 탈락하였을 공산이 크며, 늦더라도 세종 대를 거치면서 더는 국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22) 최종석, 위의 논문, 2009a 참조.

23)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경신.

거하도록” 한 제안이 있었다. 이것은 사전에 등재되어 온 여러 신묘와 주군 성황에 대한 제사 방식을 명의 예제, 구체적으로는 『홍무예제』에 부합하도록 한 건의였다. 이 건의가 수용되었음은 태종대의 기록을²⁴⁾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지방 성황에 대한 이 조치는 사전에 등재된 성황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해도, 각 군현에서 지방관이 주재하는 성황제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성종 대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의 祠廟 항목에서 보듯,²⁵⁾ 성황사는 군현의 공적 제의 시설로 사직단, 여단, 문묘와 함께 사실상 군현마다 갖추어져 있었는데, 성황사에서는 사직단, 여단, 문묘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관이 주재하는 제의가 거행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성황제는 지방관 주재의 여타 치제인 석전제, 사직제, 여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홍무예제』에 따라 거행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지방관이 주재하면서 『홍무예제』에 의거해서 거행하는 성황제는 앞서 본 사전에 등재된 성황을 대상으로 했던 조치와 일맥상 통한다고 할 수 있다.²⁶⁾

한편, 『홍무예제』에 따라 거행하였을 지방관 주재 성황제의 시행과 맞물려 종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는 공적 지위를 잃고 음사로 전락하였다. 신왕 조에서는 제사하는 자의 分限에 넘치는 제사를 음사로 간주하였는데, 산천은 제후 이상의 존재가 제사할 수 있는 대상이고 성황은 일종의 산천인 까닭에 성황에 대한 사적 혹은 향리층 주도의 致祭는 음사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는 금단 대상이 되고 말았다. 성황에 대한 제사는 제후인 국왕과 그 대리인인 지방관만이 거행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만 것이다. 이외에도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는 무당이 제의를 담당하면서 축제 형태로 거행되고 있었기에, 제사를 유교 윤리에 부합하게 거행하고자 하는 신왕

24)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6월 을묘 “禮曹啓曰 前朝於境內山川 各加封爵 或設妻妾子女甥姪之像 皆與於祭 誠爲未便 及我太祖卽位之初 本曹建議 各官城隍之神 革去爵號 但稱某州城隍之神 卽蒙俞允 已爲著令 有司因循至今 莫之舉行 爵號像設 尙仍其舊 以行淫祀 伏望申明太祖已降教旨 但稱某州城隍之神 只留神主一位 其妻妾等神 悉皆去之 山川海島之神 亦留神主一位 皆題木主曰某海某山川之神 其像設 並皆徹去 以正祀典 從之”.

25) 성종대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현존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점을 알 수 있다.

26) 정작 사전에 등재된 성황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태종 대와 세종 대를 거치면서 국제로 거행되는 성황제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의미가 없게 되고 말았다.

조의 지향에 반하였고, 이 때문에라도 금단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²⁷⁾

순창에서도 『홍무예제』에 의거해서 거행하였을 지방관 주재 성황제가 공적인 지방 제사로 시행되고 이와 맞물려 종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는 공적 지위를 잃고 음사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공적 지위를 잃고 음사로 전락하긴 했어도,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는 건재하였다. 다음의 현판 내용은 이 사실을 웅변해 주고 있다.

세월이 오래되어 國祭를 因革한 이후, 온 경내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받들며 삼가 제사를 행하니 물 흐르듯 저절로 이루어져 (성황신을 받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길에 이어짐이 끝이 없다. 매년 5월 1일에서 5일까지 향리 다섯 사람을 번갈아 정하여 각자 그의 집에 堂을 설치하여 大王이 夫人을 거느리게 하고 큰 깃발을 세워 표시하였다. 무격의 무리들이 어지럽게 무리 지어 모여 나열하여 呈才를 하며 순행하여 제사를 받들니, 역시 지극껏 폐지되지 않은 것은 신령스런 신의 덕이 사람들의 눈마다 엄숙히 들어 있어서이다.²⁸⁾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16세기 중엽 순창 지역에서는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가 매년 5월 1일에서 5일까지 거행되고 있었다. 무격들이 제사를 담당하고 성황신 부부가 존재하고, 성황신의 호칭이 『홍무예제』에 부합하는 ‘淳昌城隍之神’이 아니라 여전히 ‘大王’인 점 등, 당시 순창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는 조선이 새로이 정립한 성황제를 기준으로 하자면 전형적인 음사 형태의 제의였다. 이 제의는 16세기 중엽 무렵에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²⁹⁾ 국가의 성황제 혁신이라는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도 존속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 이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가 국가에 의해 음사로 낙인이 찍히긴 했

27) 최종석, 「조선전기 淫祀의 城隍祭의 양상과 그 성격-중화 보편 수용의 일양상-」, 『역사학보』 204, 2009b 참조.

28) 「城隍大神事跡」.

29) 한국종교사연구회 편,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에 수록된 박호원, 「朝鮮 城隍祭의 祀典化와 民俗化」와 서영대, 「韓國·中國의 城隍神仰史와 淳昌의 「城隍大神事跡」」 참조.

어도, 그리고 공적 지위를 상실하였다고는 해도 지역사회에서 건재한 현상은 일반적이고 전국적이었다. 순창군도 예외가 아닌 것이었다. 음사는 금단되어야 하나, 향리층 주도의 성향제는 구래의 관행과 종교 심성에 기반하고 있어 고려 이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할 수 있었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음사 금단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향리층 주도의 성향제는 법·제도를 동원해서라도 금단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향제는 공적 지위를 잃고 음사로 전락하였긴 하나 이것의 거행을 제어할만한 뚜렷한 기제는 없던 것이다.³⁰⁾

그러다 16세기에 순창군의 향리 주도 성향제는 여타 지역에서의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기에 봉착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 국가가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향제에 대해 이를 금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를 추가로 취하진 않았지만, 도학 이념의 실천에 열중한 지역사회 내 지방관 또는 사족이 지역에서 거행되어 온 음사적 성향제를 없애고자 하는 시도를 하곤 하였다.³¹⁾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관·사족이 이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하는 등의 실력 행사를 불사하기도 하였다.³²⁾ 당시 순창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명종 9년 또는 10년 무렵에 양응정이 순창군수로 부임하고³³⁾ 나서었다. 양응정은 도학 실천에 열중하는 인물일 것이어서³⁴⁾ 부임지에서 거행되는 음사를 용인할

30) 최중석, 앞의 논문, 2009b, 203~211쪽 참조.

31) 서영대, 『韓國·中國의 城隍神信仰史와 淳昌의 『城隍大神事跡』』, 『성향당과 성향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436~438쪽 참조.

32) 최중석, 앞의 논문, 2009b, 219~221쪽.

33) 城隍大神事跡은 양응정이 순창군의 수령으로 부임한 것을 ‘當年仲春 爲郡之宰’라고 표현해서, 이를 통해서 그가 부임한 해를 알기는 어렵다. 다행히 『松川遺集』 권5, 附錄上에 수록된 양응정의 행장을 통해 그 해를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행장은 그가 명종 7년(1552)에 문과에 급제하고서 명종 11년(1556)에 兵曹佐郎이 되기까지 많은 관직을 거친 사실을 전하는데, 외관인 全羅都事와 淳昌縣監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전에는 弘文館 正字, 侍講院 說書, 弘文館 副修撰, 藝文館 待敎, 修撰 등의 관직을 거쳤고, 淳昌縣監에서 중앙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司諫院 正言, 獻納, 侍講院 弼善, 司憲府 掌令, 持平, 工禮曹佐郎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상의 관력을 고려할 때, 양응정은 1554년 혹은 1555년 仲春에 순창군에 부임하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관력으로 보아 그가 군수로 재직할 기간은 길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앙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순창에 오래 머물진 않은 것이다.

34) 이와 관련하여 이해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참조된다. “1563년 군수로 부임한 송천 양응정은 주지하듯이 정암 조광조와 함께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능주에 유배되었다가 정암의 시신을 거두었던 학포 양팽손의 아들로 문장과 경학으로 이름을 날렸고 청요직을 두루 역임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수 없었을 것이다. 기문에 따르면, 양응정은 이전부터 행해 온 성황제를 보고서는 ‘그 폐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진실로 가히 부당하다’라고 평가하고는 ‘음란하고 사특한 것(淫邪)과 左道로 올바름을 어지럽게 한 것(左道亂正)을 물리쳤다’라고 한다. 양응정은 구래의 향리 주도 성황제를 금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를 초하루와 보름에 수령을 대신하여 향리가 유교식으로 경건하게 성황제를 거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³⁵⁾

조선시대 들어서 음식로 간주되었던 해도 건재해 온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가 이때 이르러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향리층의 처지에서 보자면,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셈이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향리층은 성황사 내에 보관되어 온 職牒들을 옮겨 새긴 현판의 제작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현판 제작의 직접적이고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첩문 발견이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행한 의도적 행위였을 사실이다. 기문에 따르면, 이방 응세언이 성황사에 보존된 직첩들을 꺼내 열어본 것은 수령 양응정이 5월 초하룻날에도 이방 응세언과 醫生 吳仁豪 및 축문을 맡은 貢生 林大春을 성황사에 보내 재계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나서다. 5월 초하룻날은 구래의 성황제가 거행되는 날이기도 한 데서,³⁶⁾ 군수 양응정이 새로이 추진한 삭망 시에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을 성황제 중에서도 5월 초하룻날의 성황제는 그 이전의 삭망 시 성황제와 달리 구래의 향리 주도 성황제의 금단과 위기를 상징하였을 것이다. 5월 초하룻날에 이방 응세언이 수령의 명에 따라 재계하고 성황신을 대상으로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서 굳이 이때 그간 소홀히 여겼을 직첩을 꺼내어 열어본 것은 위기의식에서 타

그 가족은 충과 효, 열로서 一家에서 모두 七旌閭를 명정받은 것으로도 유명하고, 호남 학백의 중추를 이루는 하서 김인후, 미암 유희추, 석천 임익령과 교류하면서 제자로 송강 정철, 옥봉 백광훈, 고죽 최경창, 죽천 박광진, 일휴당 최경희 등을 배출한 인물이다. 그것은 양응정의 성리학적 성향이 나 수령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보면 순창 지역의 성황제는 그에게 결코 달가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해준, 『淳昌 城隍祭의 變遷과 主導勢力』,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205~206쪽.

35) 『城隍大神事跡』.

36)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래의 향리 주도의 성황제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거행되었다.

개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였을 것이다. 성황사에 다수의 직첩이 보관되어있다는 말은 이전부터 돌던 것인 데서,³⁷⁾ 이날 성황사에서 직첩을 꺼내어 본 것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작심하고 한 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이방 응세언은 순창 성황신에게 수여된 職牒들 가운데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고려 충렬왕대의 두 건을 수습하고 이를 현판에 옮겨 기록하는 일을 통해, 순창 성황신이 예전부터 국가로부터 여러 차례 직첩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구래의 향리 주도 성황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을 것이다.³⁸⁾ “무릇 대소 인원들은 공경하고 또 공경할지이다.”라는 현판 내 구문은 그러한 의도를 십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⁹⁾

3. 성황신=설공검 등식 창출과 향리층 주도 성황제의 정당성 강화

순창 향리층이 선택한 위기 타개책은 국가(국왕)가 내려 준 작첩의 권위를 활용해서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의 정당성을 확보·강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방책이 병행해서 구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동국여지승람』 순창군 인물 항목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설공검을⁴⁰⁾ 성황신으로 삼고서 그가 고려 후기 이래로 성황신이었다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래의 향리 주도 성황제는 설공검에

37) ‘이방 응세언이 전에 職牒이 祠宇에 있다는 말을 듣고 꺼내 오게 하여 열어보니 과연 많았다(吏房 崑世彦 昔聞職牒在於祠宇 命出開見 則果爲多矣)’라는 현판 내 구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방 응세언은 전부터 職牒이 성황사 내에 보관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38) 각각의 직첩 다음에 “至元 신사년(1281)부터 嘉靖 계해년(1563)에 이르기까지 282년이다(自至元 辛巳 至嘉靖癸亥 二百八十二年)”와 “大德 원년 정유년(1297)부터 가정 계해년에 이르기까지 267년이다(自大德元年丁酉 至嘉靖癸亥 二百六十七年)”라고 하여, 현판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직첩 수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 또한 구래의 성황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일이었을 것이다.

39) 양응정과 같은 성향의 지방관을 대상으로 발화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40) 『동국여지승람』 순창군의 인물 항목에는 薛公儉과 趙元吉이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대해 행해 온 치제가 되는 것인데, 후술하듯 이 방책 또한 향리층 주도 성황제의 정당성을 확보·강화하는 데 기능을 하였다.

우선 설공검을 성황신으로 삼고서 그가 고려 후기 이래로 성황신이었다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낸 사안과 관련하여 현판 제작 경위 가운데 일부 구절을 보도록 하자.

지금 우리의 위대한 성황은 本郡 설씨 문중의 어른으로 높고 높은 문벌의 씨족이다. 성품과 행실이 맑고 수려하고 일찍이 과거에 올랐다. 청렴하고 정직하며 덕이 두루 미치고 仁에 和協하여 벼슬이 일품으로 삼한공신에 이르렀다. 성황신으로 의탁하니 영험이 많아 國祭에까지 이르렀고, 여러 차례 봉작을 더하여 御印을 찍은 첩문을 받은 것이 많았다.

위 인용문은 명종 18년 무렵의 시점에서 현판 제작의 경위를 밝힌 글 중에서 가장 첫 문단에 해당한다. 이 문단 가운데에서도 첫머리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의 위대한 성황은 本郡 설씨 문중의 어른으로 높고 높은 문벌의 씨족이다’라는 구문은 ‘순창 성황신=설공검’을 전제하고 있다. 곧 글의 저자인 순창 향리는 ‘순창 성황신=설공검’이라는 등식을 전제로 해서 현판 제작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城隍大神事跡 기문에서 현판 제작의 경위를 밝힌 글보다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고 작성 시기 면에서도 앞선 『동국여지승람』 순창군의 설공검 행적 및 충렬왕대에 작성된 두 건의 첩문은 서로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위의 인용문은 상호 무관하다 할 수 있는 이들 기록을 열거하고 나서 곧바로 ‘순창 성황신=설공검’을 전제하고,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서사를 창출하였다. 즉 ‘(설공검은 사망 후) 성황신으로 의탁하니 영험이 많아 國祭에까지 이르렀고, 여러 차례 봉작을 더하여 御印을 찍은 첩문을 받은 것이 많았다’라는 구문에서 보듯, 설공검이 사후 성황신에 의탁하고 나서 성황제는 국제로 치러졌고 성황신은 국가로부터 수차례 첩문을 받았다고 하였다. 설공검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순창 성황신이 된 덕택에 국제

거행 및 수차례 작첩 수여 등의 경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 가공된 서사였다. 충렬왕 대에 작성된 두 건의 첩문은 성황사에 보관된 첩문들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보아 가장 나중에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첩문조차 발급된 것은 설공검 사망 이전이었다. 설공검이 성황신이 된 것과 연관 지어 국가에서 성황신(설공검)을 대상으로 작첩을 수여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다. 또한, 국제로 치르는 성황제가 순창에서 존재하게 된 것을 성황신이 된 설공검의 영험함 덕으로 돌렸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게 국제는 설공검 생전에 이미 거행되고 있었다.⁴¹⁾

이렇다고 한다면, 어느 시기에선가 성황신=설공검이라는 등식이 창출되었고, 이와 맞물려 설공검이 성황신이 되고서 성황제는 국제로 치러졌고 성황신은 국가로부터 수차례 작첩을 받았다고 하는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서사는 城隍大神事跡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서로 무관한 『동국여지승람』 설공검 행적 및 충렬왕대에 작성된 두 건의 첩문을 서로 긴밀히 관련되는 것으로 연출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설공검은 어떤 맥락에서 순창 성황신이 되었을까? 그리고 성황신=설공검이라는 등식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하에서는 이 두 사안을 몽뚱그려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설공검은 본관이 순창군인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인물이다. 설공검의 高祖인 楔子升은 郡司戶로 향리임이 확실한 데 비해, 증조인 楔挺叔은 四門博士였고 조부인 楔宣弼은 檢校軍器監이어서 향리 여부가 분명치 않으나 조모인 趙氏가 淳昌郡司戶인 趙崇穎의 딸인 사실로 보아 楔宣弼까지는 여전히 순창군의 향리였을 것이다.⁴²⁾ 四門博士와 檢校軍器

41) 충렬왕 7년에 작성된 첩문은 성황신을 대상으로 封爵을 더하는(加封爵) 문서이기에, 순창 성황신은 충렬왕 7년에 이미 봉작을 받아 사전에 등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때 이미 국제로 거행되고 있었다는 말이다.

42) 『薛愼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김용선 편), 한림대출판부, 2006. 이해준은 '조씨가 설씨보다도 먼저 순창에 토착했던 세력'이었고, 이후 두 가문은 계속된 통혼으로 순창 지역의 대표 집단이 되어 갔다'라고 하였다. 이해준, 『淳昌 城隍祭의 變遷과 主導勢力』,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201쪽.

監은 자손이 현달해서 추증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부친인 설신은 중앙 관직자인 데서 설공검은 개경이나 그 인근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을 것이다. 조부가 순창군 향리의 딸과 혼인한 것과 달리 부친인 설신은 중앙 관원인 尙書考功郎中 崔立基의 딸과 혼인한 데서⁴³⁾ 추정할 수 있듯이, 설신은 중앙 관계로 진출한 이후 중앙 관직자의 딸과 혼인하였고, 혼인 후 거주지는 당시 관행인 술서혼⁴⁴⁾을 고려할 때 崔立基의 집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당시 중앙 관인은 개경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였기에, 설공검은 개경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였을 崔立基의 집에서 태어나 유소년 시절을 보냈을 공산이 클 것이다.⁴⁵⁾ 설공검은 과거에 합격하고 중앙 관리로 승승장구하였음에서 개경 또는 그 인근에서 평생을 보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향리의 자체가 중앙 품관이 되면, 그러한 이들은 거처를 개경 또는 그 인근으로 옮기며, 이후로는 중앙 품관 본인을 비롯하여 후손도 사실상 향리로 남은 이들과 공간적으로도 신분 계층적으로도 분리되었음에서,⁴⁶⁾ 설공검은 사실상 평생을 순창군과 무관하게 활동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사』 설공검 열전 및 『동국여지승람』 순창군 인물 항목에 수록된 설공검의 행적 어디에서도 그와 순창군의 인연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한 설공검이 순창 성황신이 될 수 있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가 『동국여지승람』 순창군 인물 항목에 수록된 것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설공검이 사실상 순창군과 무관하게 활동하였던 인물인 사실과는 별개로, 『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에 그는 순창군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했기에 『동국여지승람』 순창군 인물 항목에 첫 번째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설씨가 군의 土姓으로 수위에 자리하고 있는 사실도⁴⁷⁾ 설공검이 순창 성황신이 되는

43) 『薛愼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김용선 편), 한림대출판부, 2006.

44) 노명호, 「가족제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권순형,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 혜안, 2006 참조.

45) 설공검은 崔立基의 집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개경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였을 것이다.

46) 오일순, 「사회집단간의 차별의식과 신분관념」, 『동방학지』 124, 2004, 171~172쪽.

47)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순창군 “土姓五 薛廉林趙崑 續姓一 金”;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다만 설공검이 『동국여지승람』 순창군 인물 항목에 수록되었을 당시에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이 이미 존재하였거나 성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 순창군 인물 항목에 수록된 설공검 행적에 관한 글 어디에서도 그러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祠廟 항목의 (순창)성황사에도 설공검이 성황신이라는 사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여타 지역 성황사 항목에 성황신이 된 역사 인물이 기록되곤 한 것과⁴⁸⁾ 달리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동국여지승람』이 작성된 성종 대까지도, 더 나아가 증보가 이루어진 중종 대까지도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은 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은 양응정이 수령으로 부임하여 구래의 향리 주도 성황제를 삭망 시에 유교식으로 치렀을 성황제로 대체한 데 따른 위기 상황에서 향리층이 창출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곧 이러한 등식은 현판을 제작할 무렵에, 또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양응정이 수령으로 부임하여 향리 주도 성황제를 억압하였을 무렵에 창출되었을 것이다.

앞서 인용한 바 있는 현판 제작 경위 가운데 일부 구절도 이 점을 방증해 주고 있다. ‘성품과 행실이 맑고 수려하여 일찍이 과거에 올랐다’ 이하의 구절은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을 전제로 하면서 城隍大神事跡 현판에서 앞부분에 배치한 『동국여지승람』 설공검 행적 및 충렬왕대에 작성된 두 건의 첩문을 적당히 버무린 내용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과정에서 설공검 행적과 두 건의 첩문을 활용하여 설공검이 성황신이 되고서 성황제는 국제로 치러졌고 성황신은 국가로부터 수차례 첩문을 받았다고 하는 새로운

39, 전라도 순창군 姓氏 “本郡 薛廉林趙厓一作巖 金績”.

48)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경상도 양산군 사묘 성황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의성현 사묘 성황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경상도 밀양도호부 사묘 성황사. 경우에 따라서는 인물 항목에 해당 인물이 성황신인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 전라도 곡성현 인물 신승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전라도 순천도호부 인물 김충 참조.

서사를 창출해 내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이 현판 제작의 경위를 밝히는 명종 18년 무렵의 시점보다 꽤 이전에 출현했다면, 그 사이에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을 토대로 한 여러 에피소드가 생성되었을 것이고,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을 토대로 한 관련 내러티브는 이들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더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테지만, 앞서 인용한 현판 제작 경위 가운데 일부 구절은 서로 연관이 없는 설공검 기록과 두 건의 첩문을 억지스럽게 엮은 —사실관계의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현판 제작 경위를 밝히는 글 가운데 서두를 장식한 것으로 성황신을 소개하는 부분인 위 인용문에서만 성황신으로서 설공검이 언급될 뿐, 이것 다음에 기술된 구래의 순창 성황제를 다루는 내용 어디에서도 설공검에 대한 일말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현판 제작 경위를 밝히는 글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고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와 관련한 언급에서는 성황신은 확인되나 설공검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16세기 중엽까지의 성황제 관련 상황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설공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현상은 16세기 중엽 무렵에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이 급조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만을 만들었지, 아직 이를 성황제의에 반영하지는 못한 것이다. 반영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이다.⁴⁹⁾

이렇다고 한다면,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은 양응정이 수령으로 부임하여 구래의 향리 주도 성황제를 삭망 시에 유교식으로 치렀을 성황제로 대체한 데 따른 위기 상황에서 향리층이 급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리층은 군의 土姓으로 수위에 자리하고 있는 설씨이기도 하고 『동국여지승람』 순창군 인물 항목에 수위로 수록된 설공검을 성황신으로 모심으로써, 그리고 양응정과 같은 도학 이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사가 보더라도 존송할 수 있는 설공검이라는 역사 인물을 성황신으로 내세워⁵⁰⁾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

49) 남풍현과 김기덕 등은 설공검이 성황신으로 모셔진 시기가 고려말기일 것으로 보았다. 다만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남풍현, 『淳昌 城隍堂 현판의 관독과 해석』,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56쪽; 김기덕, 『고려시대 성황신에 대한 봉작과 순창의 〈城隍大神事跡〉 현판의 분석』,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146쪽 참조.

의 정당성을 확보·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결국, 향리층이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가 이러한 위상을 지닌 성황신 설공검에 대한 제의로, 양응정과 같은 도학이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사라 할지라도 용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는 주장이었을 것이다.

4. 맺음말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양응정이 군수로 부임하여 음사 금단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과 맞물려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가 금단되고만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향리층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행한 두 종류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들 정책은 서로 연관된 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만큼, 이하에서는 이들 정책을 활용하여 위기를 타개하고자 행한 노력을 종합하여 위기에 맞서 순창의 향리사회가 취한 행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재구성해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옹세언 등의 순창군의 향리들은 향리 주도의 성황제가 중단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를 갖고 성황사 내에 보관된 성황신에게 수여된 職牒들 가운데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는 이들 첩문을 현판에 새기는 작업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순창의 향리층은 현판에 이들 첩문을 새기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⁵¹⁾ 다른 한편으로는 군의 土姓인 설씨이기도 하고 『동국여지승람』 순창군 인물 항목에 수위로 기록된 설공검을 주목하면서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을 만들어 내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들 첩문을 새기는 현판에다가 『동국여지승람』의

50) 김갑동은 순창 성황신으로 무신이 아닌 문신을 모신 점을 특이하다고 하였으며 과거에도 합격하여 재상의 자리에 오른 문신 설공검을 모신 것을 독특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김갑동, 『高麗時代 淳昌의 城隍神仰과 그 意味』,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95쪽), 이러한 특수성은 양응정과 같은 성황의 인물을 상대로 성황신을 정당화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51) 이 작업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설공검 행적도 함께 수록하려 계획했을 것이다.⁵²⁾ 이들은 단순히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을 전제로 하여 현판에다가 『동국여지승람』 순창군 인물 항목에 수록된 설공검의 행적 및 성황신에게 봉작을 더하고 존호를 더 높이는 2건의 첩문을 빼껴 새기려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순창 성황신=설공검’의 등식은 고려후기에 설공검이 사망하고 나서부터 있어 온 것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설공검이 성황신이 되어서 성황제는 국제로 치러졌고 성황신은 국가로부터 수차례 첩문을 받았다고 하는 새로운 서사를 창출하였을 것이다.⁵³⁾

순창군의 향리 사회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순창의 성황신인 설공검은 양응정과 같은 이가 보더라도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역사 인물이고 과거에 國祭의 대상이었으며 여러 차례 국가로부터 爵牒을 받았던 존재라 칭송하여 성황신의 정당성을 확보·강화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양응정과 같은 성향의 이들을 상대로 현판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

세월이 오래되어 國祭를 因革한 이후, 온 경내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받들며
삼가 제사를 행하니 물 흐르듯 저절로 이루어져 (성황신을 받들기 위하여 사람들
이) 길에 이어짐이 끊이 없다. 매년 5월 1일에서 5일까지 향리 다섯 사람을 번갈아

52) 앞서 언급했듯이, 명종 18년에 현판을 처음 제작하였을 시에 현판에 수록하는 내용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두 건의 첩문이고, 각각의 첩문 뒤에는 구래의 성황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직접 수여 시점으로부터 현판 제작 시점까지의 햇수가 기록되었다. 그런데 새로이 창출한 ‘순창 성황신=설공검’ 등식을 전제로 현판 내용에 『동국여지승람』의 설공검 행적을 추가하였고, 이와 함께 첩문 기록 방식에 맞춰 『동국여지승람』의 설공검 행적 뒤에 “고종 원년(1214)부터 嘉靖 42년 계해년(1563)에 이르기까지는 350년이다(自高宗元年 至嘉靖四十二年癸亥 三百五十年)”와 같이 설공검의 행적 글로부터 현판 제작 시점까지의 햇수를 기록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글은 작첩과 달리 문서 작성(수여)의 시점을 잡을 수 없거나 설정하기에 모호한 난점이 있지만, 현판 작성자는 첩문 기록 방식에 기계적으로 맞추다 보니, 『동국여지승람』의 설공검 행적에서 가장 오래된 연대인 고종대의 원년을 시작하는 해로 임의로 잡았을 것이다. 현판 제작 때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시작하는 해로 고종 원년을 다소 억지로 설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고종 원년이 현판 기록자가 파악한 설공검의 생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하나, 『동국여지승람』에 설공검 관련 연대 중 고종 때가 처음으로 나오므로 현판의 기록자가 설공검의 생년을 적당히 고종 원년이라 한 추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서영대, 『韓國·中國의 城隍神仰史와 淳昌의 『城隍大神事跡』』,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456~457쪽 참조.

53) 이러한 작업은 일종의 순환논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하여 각자 그의 집에 堂을 설치하여 大王이 夫人을 거느리게 하고 큰 깃발을 세워 표시하였다. 무격의 무리들이 어지럽게 무리 지어 모여 나열하여 畵才를 하며 순행하여 제사를 받드니, 역시 지금껏 폐지되지 않은 것은 신령스런 신의 덕이 사람들의 눈마다 업속히 들어 있어서이다.⁵⁴⁾

이 중에서도 특히 밑줄 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을 것이다. 즉 구래의 향리 주도 성황제는 온 경내 사람들의 받들 속에서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고, 또한, 그럴 수 있는 데에는 성황신의 덕(이나 영험)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황제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본심이었을 것이다. 즉 유교적 가치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인물인 설공검을 성황신으로 모시고 國祭와 爵牒을 부각하여 성황신의 정당성을 확보·강화하는 밑 작업을 행하면서 여기에 별도의 논리와 사실을 덧붙여 이러한 성황신을 섬겨온 향리층 주도 성황제 지속의 당위성을 역설하고자 했을 것이다. 곧 향리 주도 성황제 존속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다지고자 한 것이다. 현판 작성 경위에 따르면, 순창 향리 사회는 위 인용문에 뒤이어 양응정이 군수로 부임한 이후 구래의 향리 주도 성황제를 음사라 하여 금단하고 이를 삭망 시에 유교식으로 경건하게 치르는 성황제로 대체한 사실을 담담하게 —표면적으로는 비판 없이— 기술했으나,⁵⁵⁾ 내심으로는 두 건의 직첩 발굴을 시작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했고, 그 과정과 결과는 지금까지 본 바와 같다.

위기에 처한 구래의 성황제를 구해내고자 하는 향리 사회의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城隍大神事跡에서 알 수 있듯이, 16세기 중엽 이후로도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가 존속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순창 향리 사회의 위기 타개책이 일정 정도 효력을 발휘했을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우나, 순창 이외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는 구래의 향리층

54) 『城隍大神事跡』.

55) “지금 우리의 군수인 綾城 梁氏는 본래 문벌 좋은 씨족으로 일찍이 생원시에 장원으로 뽑혔고, 다음에 과거에 올랐으며, 또 문과 중시에 장원으로 올라 文名이 자자하였고, 성품과 행실이 뛰어나고 올바른 한림학사이다.”(『城隍大神事跡』)라고 하듯, 양응정을 추켜세우기까지 하였다.

주도 성황제가 폐지되거나 위기에 몰렸다가도 시간이 지난 후 복구되는 경향이 강한 사실을 고려하면,⁵⁶⁾ 그리고 향리층 주도 성황제의 강한 복원력은 기본적으로는 지역민들 내에 자리 잡은 구래의 관행과 종교 심성에서 비롯되었을 사실을 참작한다면, 향리 사회의 위기 타개책이 직접적이지자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여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가 존속하게 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순창 지역 성황제 사례의 연구사적 의미는 16세기 들어 지역사회 층위에서 도학 이념을 체화한 지방관이나 재지 사족이 음사 금단을 앞장서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구래의 향리층 주도 성황제가 존속한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위기에 빠진 향리층 주도 성황제를 구해내고자 하는 향리 사회의 노력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⁷⁾ 그러한 노력이 향리층 주도 성황제 존속의 주요한 요인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여타 지역 사례를 보면 순창 지역에서도 같이 위기에 돌고 돌아 16세기 이후로도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는 일반적으로 존속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향리사회의 구체적 대응 모습은 기록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앞서 현판 내용의 구성을 다룰 때 언급했듯이, 城隍大神事跡 말미에는 山城大母에 관한 기록도 있다. 마지막으로 城隍大神事跡에 산성대모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이유를 간략히 언급해보도록 하겠다.

56) 최종석, 앞의 논문, 2009b.

57) 정승모는 '조선 중기 이후로는 외래한 사족 세력들이 '음사'로 비판함에 따라 기존 세력이 주도해 온 성황제의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라고 보고, 순창 성황제가 조선 중기 이후로도 지속한 것은 특수한 현상이고 이것은 순창의 향리층이 성리학적 질서에 부합하고 지역의 대표 출신인 설공검을 성황신화하여 음사를 배격하는 군수 양응정과 타협을 이룬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정승모, 『조선중기 전라도 순창군 성황제의 성격』,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참조.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보듯, 본고에서는 16세기 중엽 이후로도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가 존속한 것을 특수한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순창 향리층의 노력을 폄하하진 않지만, 설공검을 성황신화한 게 성황제 존속의 결정적 이유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설공검을 성황신화한다고 해서 정승모의 견해처럼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가 음사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는 조선 초기 이래로 줄곧 음사였고, 성리학적 질서에 부합하는 인물로 신격을 바꾼다고 해서 향리층 주도의 성황제가 음사와 무관한 것이 될 수는 없었다. 조선에서 음사가 아닌 성황제는 『홍무예제』에 부합하여 거행되는 것이어야 했다. 다만 음사를 둘러싼 환경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곤 하여, 묵인·용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수도, 폐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우세할 수도 있었다.

수록 이유를 직접 말해주는 기록은 없다. 전후 사정을 알려주는 기록도, 간접적 기록도 없다. 단서는 옹세언 등의 순창 향리층이 城隍大神事跡 현판을 제작한 게 향리층 주도의 구래의 성황제를 위기에서 견져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일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城隍大神事跡 말미에 산성대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사정 역시 양응정의 군수 부임 이후로 동일 또한 유사한 위기에 빠졌을 산성대모 제의의 존속을 도모해서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굳이 산성대모에 관한 제의도 위기에서 구해내려 한 것은 이 제의도 향리층이 주도 혹은 관여하는 제의여서였을 것이다. 기록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山城大母가 처음으로 그의 아홉 아들을 데리고 성터를 굳게 쌓아 군의 雄居를 만들고 많은 곡물을 비축하였다. 이어 관가에 귀속시켜서 나라의 곡식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니, 그 공이 매우 크다. 이에 靈神이 되어서 太守가 친히 나아가 奠을 드리니, 그 세월이 오래되었다. 인하여 폐지하고 대신 눈앞의 通引을 보내어 매년 4월 그믐날 冠帶를 단정히 하고 驛馬를 타고 가니, 앞뒤에는 사람들이 걸어서 따르고 呈才하는 사람들을 벌려 서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이를 지켜 거행한다. 가물 때면 비를 빌어 그 靈神의 은덕이 또한 온 경내의 백성들에게 미치니, 아, 지극하다 하겠다. 이 역시 끝에 붙여 새긴다.⁵⁸⁾

여기에서도 역시 산성대모와 그 제의의 정당성을 提高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산성대모가 순창군과 국가에 대해 행한 막대한 공로를 부각하고, 이와 맞물려 그 靈神(산성대모)을 대상으로 太守가 친히 나아가 奠을 드린 바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山城大母에 대한 (지역사회의) 제의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준행되어 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는 가뭄시에 비를 내려주는 그 영신(산성대모)의 은덕을 칭송하였다. 성황제와 달리 기록상으로는 양응정의 부임으로 인한 위기는 뚜렷이 확인되지 않긴 해도,

58) 『城隍大神事跡』.

‘눈앞의 通引을 보내어 매년 4월 그믐날 冠帶를 단정히 하고 驛馬를 타고 가니, 앞뒤에는 사람들이 걸어서 따르고 呈才하는 사람들을 벌려 서게 하였다’라는 山城大母에 관한 제의도 음사적으로 거행되는 만큼, 양웅정에 의한 금단 처분을 피해가긴 어려웠을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향리층은 山城大母와 그 제의의 정당성을 提高하는 것을 통해서 존속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산성대모에 관한 내용이 ‘城隍大神事跡’을 제목으로 하는 현판에 실렸다고 해서, 산성대모에 관한 제의는 성황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순창의 향리층이 산성대모에 관한 제의도 함께 위기에서 구해내고자 했던 것으로 단정해서는 곤란한 듯싶다. 산성대모에 관한 제의가 성황제 하루 앞서 거행된 데서, 본래 양자는 상호 긴밀하였을 확률이 높긴 하나,⁵⁹⁾ 명종 18년 무렵의 상황을 알려주는 현판 기록 어디에서도 순창 성황과 산성대모를 엮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⁶⁰⁾ 요컨대, 과거에는 달랐을 수도 있지만, 현판을 제작하였을 당시에는 순창 성황사와 산성대모가 직접적 관련 없이 별도로 존재한 듯싶다.

따라서 산성대모에 관한 내용이 ‘城隍大神事跡’을 제목으로 하는 현판에 실린 것은 산성대모에 관한 제의가 성황제의 일부이거나 성황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가 아니라, 성황제와 마찬가지로 향리층이 주도 또는 관여하는 제의였을 것이면서 음사로 간주되어 위기에 빠져 있었을 산성대모 제의도 城隍大神事跡 말미에 수록하여, 현판 제작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성황제를 구하고자 하는 김에 산성대모 제의도 함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데서였을 것이다. 산성대모 제의에 관한 내용은 ‘附末’이라는 표현대로 순창 성황신의 사적을 정리하는 글에 일종의 끼워 넣은 글이라 할 수 있다.

59) 성황사는 이전에는 大母山城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김갑동, 『高麗時代 淳昌의 城隍神仰과 그 意味』,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108~109쪽), 만약 그러했다면 山城大母에 관한 제의와 성황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하겠다.

60) 서영대도 이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영대, 『韓國·中國의 城隍神仰史와 淳昌의 『城隍大神事跡』』,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449쪽 참조.

■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松川遺集』, 『城隍大神事跡』, 『高麗墓誌銘集成』(김용선 편, 한림대출판부, 2006)
- 권순형,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 해안, 2006.
- 김갑동, 『高麗時代 淳昌의 城隍神信仰과 그 意味』,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 김기덕, 『고려시대 성황신에 대한 봉작과 순창의 <城隍大神事跡> 현판의 분석』,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 남풍현, 『淳昌 城隍堂 현판의 판독과 해석』,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 노명호, 『가족제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 박호원, 『朝鮮 城隍祭의 祀典化와 民俗化』,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 서영대, 『韓國·中國의 城隍神信仰史와 淳昌의 『城隍大神事跡』』,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88.
- 송희섭, 『순창의 성황신과 성황신앙』, 『순창의 역사와 문화』, 문예연구사, 2002.
- 심승구, 『순창 성황제의 현대적 의미와 재현 방향』, 『백산학보』 118, 백산학회, 2020.
- 오일순, 『사회집단간의 차별의식과 신분관념』, 『동방학지』 12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 이기태, 『성황사의 지역사회 이념의 통합 - 조선중·후기 순창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역사민속학』 8, 역사민속학회, 1999.
- 이해준, 『淳昌 城隍祭의 變遷과 主導勢力』,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 정승모, 『조선중기 전라도 순창군 성황제의 성격』, 『성황당과 성황제』(한국종교사연구회 편), 민속원, 1998.
- 최중석, 『어말선조 명(明)의 예제(禮制)와 지방 성황제(城隍祭) 재편』,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9a.
- _____, 『조선전기 淫祀的 城隍祭의 양상과 그 성격 - 중화 보편 수용의 일양상 -』, 『역사학보』 204, 역사학회, 2009b.
- _____, 『조선 초기 종교 심성의 전환과 神事 혁신』, 『민족문화연구』 8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 小島毅, 『中國近世における禮の言説』, 東京大學出版會, 1996.
- 濱島敦俊, 『總管信仰 - 近世江南農村社會と民間信仰』, 研文出版, 2001.

16世紀中葉淳昌郷吏社会の「城隍大神事跡」 懸板製作の背景と過程

崔鍾奭*

本稿は明宗18年(1563)頃に「城隍大神事跡」を題目とする懸板を製作した背景と過程を一層深化して理解することを目指して作成された。懸板製作の背景と過程は概略的に次の通りである。

道學実践に熱中した人物の梁應鼎は郡守に赴任した後、舊來の郷吏主導城隍祭を淫祀とみなして禁斷し、これを朔望時に儒教式に敬虔に行う城隍祭に置き換えた。淳昌郡の郷吏らは郷吏主導の城隍祭が中斷された危機状況を打開する一環として「城隍大神事跡」の懸板を製作した。

懸板作業の核心は、城隍祠内に保管されてきた、高麗後期のもので、城隍神に授与された職牒を懸板に移して刻んで後世に見せるものといえる。この仕事を通じて、郷吏社会は淳昌の城隍神が以前から国家から何度も職牒を受けた特別な存在であることを強調し、城隍神の正当性を確保・強化しようとしただろう。これと並行して、淳昌の郷吏層は郡の土姓である薛氏でもあり、『東國輿地勝覽』淳昌郡の人物項目に最初に記録された薛公儉を城隍神にし、儒教的価値から見ても優れた人物である薛公儉を城隍神にしつつ、これらの牒文を刻む懸板に加え、『東國輿地勝覽』の薛公儉行蹟も一緒に収録した。また懸板製作の経緯を明らかにする文では、城隍神=薛公儉という等式を創出しながら、薛公儉が高麗後期以来城隍神だったという新しい神話を作り、これと同時に薛公儉が城隍神になった後、城隍祭は国祭で行われ、城隍神は国家から数回爵牒を受けたという新しい叙事を作り出した。淳昌郡の郷吏社会は、このような作業を通じて、淳昌の城隍神である薛公儉は梁應鼎のような人が見ても望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ersity

ましく模範的な歴史人物であり、過去に国祭の対象であり、何度も国家から爵牒を受けた存在だと称賛して、城隍神の正当性を確保・強化しようとしただろう。

危機に陥った舊來の城隍祭を救おうとする淳昌郷吏社会のこのような努力は、結果的には所期の目標を達成したといえる。16世紀中葉以後でも郷吏主導の城隍祭が存続したことからそうだ。特に淳昌地域事例が目立つ点は、他の地域事例とは異なり、危機に陥った郷吏層主導城隍祭を救おうとする郷里社会の対応努力が具体的に確認される事実といえる。

[主題語] 淳昌, 郷吏, 城隍祭, 城隍神, 淫祀, 薛公儉